



## 전통인물의 기품과 우리옷의 미학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펴낸 권오창씨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옷은 비록 신분에 따라 그 색상·문양·장식물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결같이 우리의 자연을 닮은 선과 색, 그리고 농경문화의 정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91년과 92년 그리고 93년에는 각각 문체부로부터 표준영정작가로 지정받아 설총·김부식·정도전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 표준영정 하나를 제작하는 데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한 인물에 대한 당대 및 후대의 통일적인 이미지를 결정짓는 일이기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화폭 앞에 선다.

“이 시대에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통 인물화를 고집한다는 것은 무척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통의 맥이 우리시대에 끊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평생의 업으로 삼고 계속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역사인물들의 초상화를 한점한점 그리는 일에 정진할 것이다. 치밀한 자료의 고증과 예술가적 상상력을 통해 역사적 인물을 이 시대로 불러내겠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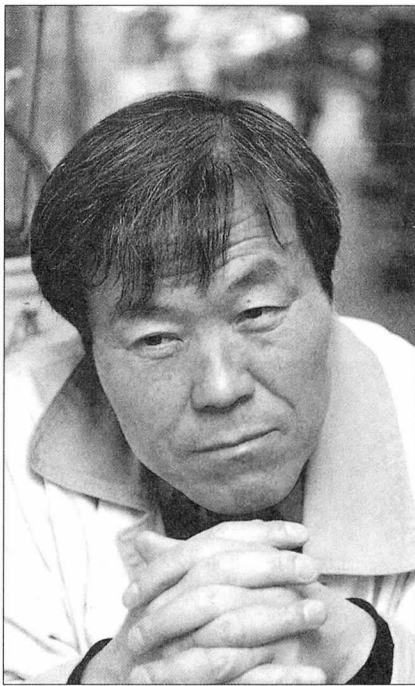
— 박천홍 기자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현암사)을 통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버린 조선시대 인물과 우리옷을 고스란히 복원시킨 권오창 화백(50)은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는 화폭에 조상들의 단아한 인품과 우리옷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되살려왔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이자 전통인물화 화실 도감청을 운영하고 있는 그가 전통인물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원래는 생계수단으로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 말부터 우연히 우리나라 초기의 흑백사진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과 옷을 컬러로 재현해보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단순히 인물을 그리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인물 내면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전국의 박물관과 출토유물 발표회, 전통복식에 관한 전시회, 각종 행사와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인물과 옷에 대한 각종 자료를 모으고 최대한 실물에 가깝게 그리려고 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90년 ‘조선조 말기 복식과 초상전’을 열었다. 그후 8년 동안 그린 83점의 조선 인물화를 모아 지난달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덕수궁 궁정유물전시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회에 맞춰 펴낸 이 책에는 왕이 종묘사직에 제사지낼 때 입는 면복과 왕이 평소 집무를 볼 때 입던 익선관포부터 과거급제한 사람이 입는 앵삼, 양반댁 여인의 혼수복인 활옷, 기생복 등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각 계층의 생활상과 한복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 인물화들이



## 일상생활의 감각으로 풀어낸 선(禪)

《이뭇고》 펴낸 이 청씨

월산스님이 평생 화두로 삼은 말이다. 그러나 화두 자체는 깨달음이 아니다. 달을 가리킨 손가락, 강을 건너면 버려지는 나룻배로 비유되는 화두는 그저 견성의 세계로 가는 길잡이일 뿐이다.

“부처가 수만권의 어록을 남기고도 ‘한 자도 설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이나 성철스님이 ‘평생 동안 남을 속였으니 그 죄가 수미산에 닿았다’고 한 말은 진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견성의 세계란 언어 밖에 있는 것이다. 책을 쓰면서 언어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그는 ‘완성의 세계’를 추구하는 소설가로서 불교에 심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불교의 최종목표가 바로 정신적인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청씨는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사바행》, 《부처님 동네》, 최근 《사리》까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발표했다. 얼마전 타계한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우리옆에 왔던 부처》를 펴낸 것도 불심에 대한 그의 정신적 추구다.

이청씨는 스님들과 좀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스스로 안고 있는 의문점을 푸는 과정을 독자들과 나누는 생각으로 불교의 세계를 소개하려 한다. — 이현주 기자

모든 진리와 대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불교적 가르침의 핵심이다. 선(禪)은 이 가르침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실천적이고 도전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선은 알듯 모를 듯한 중국조사의 계승이나 화두로 신비화된다. 소설가 이청씨(53)는 《이뭇고》(불교영상)에서 난해하고 고답적인 언어의 세계에 갇힌 ‘선(禪)’을 일상생활의 감각으로 풀어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곧 선입니다. 참선을 통해서만 모든 의문을 타파하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 ‘현장 탐험’이라는 방법을 시도했다. 마치 선방을 들여다보듯 성철·경봉·서암·월하·진제·해암·송담 등 최근에 입적했거나 생존해 있는 조실스님은 물론, 현전·우송·휴암·인각·진허·명정 등 선원장 스님의 육성을 통해 참선의 고통과 구도의 길을 탐구했다.

“해방 후 우리 불교계를 이끌어온 선승이 조금이나마 살아계실 때 선에 관한 책이 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스님들의 생생한 육성은 우리 불교가 참선제일주의의 선불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팔공산 동화사 진제스님의 “선 외에 성불의 길이 없다”나 극락암 호국선원 명정스님의 “선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 우리의 삶 그 자체”는 모두 월하스님의 “한국 불교는 참선을 하여 깨닫는 것이 골자”라는 말과 같다.

참선의 첫걸음은 바로 화두다. 우리 불교의 방법론은 화두를 참구하여 견성성불(見性成佛)에 이르는 간화선(看話禪)이다. 제목으로 쓴 “이뭇고”도





## 허구적 환경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환경에 관한 오해와 거짓말》 펴낸  
이항규씨

한때 특정 연구기관에서 풍력을 이용하기 위해 서구의 기술과 장비를 도입했다가 실패하자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개인 연구자가 서구 기술을 능가하는 기술과 장비를 개발했다. 그러나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커졌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은 독점적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도 쓸 수 없단지요. 적어도 의식이 깨어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도 이와 같은 사고로 대처하고 있어 접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삶과 직결되는 문제만큼은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희망했다. 그 원천적인 힘은 일상에서의 과학적 사고 함양과 고정관념을 깨는 의식전환이라고 역설한다.

과학자이며 세계적인 독일 기업 오이펙의 동아시아지역 대표 직함을 가진 그가 얼마전 《대학을 없애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펴낸 것도 스스로 고정관념을 깨려고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다. 최근엔 전공과 무관한 한국 국방문제를 천착하는 원고를 탈고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빛을 발한다.

— 오완진 기자

눈부신 경제발전의 양지를 벗어나면 병든 산천의 음험함이 도사리고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과연 경제발전의 수혜자인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서구의 분석주의와 그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의 폐해를 지적하는 이항규(46, 공학박사)씨는 고개를 짓는다. 과학기술의 왜곡된 전파와 이에 근거한 경제정책이 심각한 환경문제의 단초였음을 《환경에 관한 오해와 거짓말》(모색)을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

“서구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적 현상은 전혀 관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기술정책을 양산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과학의 우월성을 내세워 무마하려 들 뿐이지요.”

과학 엘리트 사고에 도취된 사람들이 기술응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서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예를 음식찌꺼기 처리방식을 들어 설명했다. 탕과 발효식품이 중심인 우리 식생활은 당연히 찌꺼기를 많이 발생시킨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마다 소각장을 세웠다. 그러나 80%가 물인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에너지를 태우고 2차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소각 방식의 도입은 크게 잘못된 발상이었다고 지적한다. 소각장 건설과 처리비용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적용했다면 오염 걱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소가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바람 또는 물과 같은 무한한 에너지원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도적 걸림돌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출판살리기 캠페인 2

이제는 출판도  
유통 브랜드로 길을 뚫어야 합니다



도모  
DOMO®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힘의 논리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서구의 출판계는 대자본에 의해 출판 시장이 장악되고 있고, 작은 출판사들은 마케팅에 언제나 뒤지기 때문에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출판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이 맞는 몇몇 출판사들이 공동 창고나 배송을 시도하고 있으나, 영업이 통합되지 못하면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가정전문서점 유통 브랜드로 '도모'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3십만 종의 책 중에서 가정을 주제로 했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을 판매 가능성, 질 등을 고려하여 3천 종에서 5천 종을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서점 체제에 미국에서 유통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월마트' 식으로 상품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도모'는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책을 구비하여, IMF 한파 때문에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제공하고, 행복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문학 전문서점·추리 소설 전문서점·연애 소설 전문서점·시 전문서점·청소년 도서 전문서점·음악 전문서점·사진 전문서점·사회 과학 전문서점·인문 과학 전문서점·컴퓨터 전문서점 등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전문출판사나 도매상이 영역을 특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판로를 찾지 못하여 애써 만든 책을 덩핑으로 팔면서 전전긍긍하기보다 마음을 가다듬고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출판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어디에서나 푸대접을 받는 중소출판사들은 적극적으로 영역을 특화하여 공동의 유통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관심이 있고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예영커뮤니케이션이 컨설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가정전문서점 '도모'는 서울국제도서전·알뜰도서전 참가시기와 맞물려 두 마리 토끼를 무리하게 잡기보다 하나하나 제대로 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 6월 1일 오전 10시로 개점 시간을 연기했습니다.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출판계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100-616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661  
출판부 T. 851-2247 출판유통사업부 T. 830-8566 F. 830-8567